



## 오늘의 날씨와 생활

9월 10일 월요일 음 8월 1일 (8월)

### 기상정보



### 구름 조금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다.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 오 전 | 강 수 확 률 |       | 오 후 |
|-----|---------|-------|-----|
| 10% | ■       | 제 주 ■ | 10% |
| 10% | ■       | 성 산 ■ | 10% |
| 10% | ■       | 고 산 ■ | 10% |
| 10% | ■       | 서귀포 ■ | 10% |

|             |           |
|-------------|-----------|
| 해돋이 06:14   | 달뜨기 06:24 |
| 해질 18:48    | 달지기 19:24 |
| 물때 만조 10:50 | 간조 05:17  |
| 23:24       | 17:23     |

### 주간예보

|    |       |         |
|----|-------|---------|
| 내일 | 구름 많음 | 21/26°C |
| 모레 | 구름 많음 | 22/27°C |

### 생활·안전 기상정보

|       |       |
|-------|-------|
| 자외선지수 | 식중독지수 |
| 매우 높음 | 위험    |



## 월드뉴스

## 태평양 쓰레기 섬에 ‘청소기’ 띄운다

### 24세 청년 프로젝트 결실

태평양을 부유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네덜란드의 한 비영리 연구기관이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수거장치를 개발해 8일(현지시간) 처음 바다에 투입했다고 A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네덜란드의 발명가 보안 슬라트(24)가 디자인한 이 해양 쓰레기 수거장치는 총 600m 길이의 ‘U’자 모양으로, 수면 위에 떠다니면서 여기에 수면 아래 3m 길이로 부착된 막(screen)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끌어모으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북태평양 하와이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사이 태평양 해상의 ‘거대 쓰레기 섬’(The Great Pacific Garbage Patch)은 점점 커져 올해 초 한반도 면적(22만3000㎢)의 7배 크기인 약 155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슬라트가 18살 때 설립한 ‘오션 클린업’



오션클린업이 개발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수거장치.

(The Ocean Cleanup)이 이번엔 태평양에 처음 띄우는 이 장치는 태평양 쓰레기 섬을 떠다니는 1조8000억 조각의 플라스틱 쓰레기 일부를 수거할 예정이다.

16살 때 지중해에서 스쿠버다이빙을 즐기다 바닷속에 물고기보다 비닐 봉지가 더 많이 떠다니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 이 단체를 설립한 그는 “플라스틱은 매우 질기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행동을 취해야 할 때는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백록담



이 현 숙

행정사회부장

최근 한국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중 여성들에게 의미있는 변화로 다가오는 것은 ‘미투운동’ 일 것이다. 이에 대한 언론의 태도는 어땠을까. 미투운동에 대한 언론보도를 모니터링한 보고서에 따르면, 자극적이고 단편적인 내용으로

오하려 2차, 3차 피해를 가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역언론도 이같은 비판에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올해 공공기획 취재 주제로 ‘성평등과 지역언론의 역할’을 선정하고 참가자를 공모, 9명을 선정했다.

기자는 공동취재팀 일원으로 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언론중재위원회, 한국YWCA 등을 취재할 수 있었다. 이중

## 국내 첫 성평등 도서관 ‘여기’가 전하는 말

취재팀의 큰 관심을 모았던 곳은 국내 처음이자 유일한 성평등 도서관 ‘여기’였다. 이곳에는 성평등의 역사와 변화상을 비롯한 각종 여성정책과 여성운동 등의 자료가 집약되어 있어 놀라웠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성평등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서울시 출연기관이다. ‘서울시 여성과 가족을 위한 성평등 플랫폼’을 표방하고 서울여성플라자를 운영하고 있고, 여성가족 소통공간 스페이스 ‘살림’도 건립하고 있다.

도서관 ‘여기’는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내 2층에 857㎡ 규모로 마련되어 있는데 전체가 트인 열린 공간이었다. 이곳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여성정책 자료, 여성운동·여성단체·여성기관 자료가 모여 있고 관련 모임과 토론, 전시 등을 열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도서관 이름은 ‘여성이 기록하고 여성을 기억하는 공간, 바로 이곳(here)’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시민공모전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됐다. 서울시의 성평등을 바라보는 인식을 보여주는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여성이 행복해야 서울이 행복하다’라는 자치단체장의 생각이 잘 드러나 있었다. 여성플라자 1층에는 손으로 만든 수공예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활을 돕는 것이다. 벽면에는 여성들을 위한 정보 담긴 안내책자들이 보기좋게 정리되어 있다. ‘여성을 위한 꿈꾸 서울-여성종합가이드북’ ‘여성안심특별서’ ‘소녀돌봄악곡’ 공공자료부터 ‘여성환경연대’ ‘성폭력상담소’ 등 NGO 소개 책자까지 여성들은 언제든지 친숙하게 이들과 만날 수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여성단체 등이 기증한 여성사 관련 자료를 디지털화해 영구 보존하고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부천시 성고문사건(1986), 서울대 신교수사건(1992), 여성국제전범 기록물, 위안부 자료집 등 여성사와 관련된 당시 종이 기록물은 물론, 기사스크랩자료 약 1만장과 포스터 67종 122장, 기념품 80개 등도 디

지탈화되어 보관중이다.

2016년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 당시 작성된 시민 추모 메시지(포스트잇) 3만5000여 장도 정리되어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이같은 내용으로 ‘성평등 정책·현장자료 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5년 개관 초기 여성관련 분야의 개인, NGO, 여성단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기증받았다. 이 곳은 도서관이면서 ‘기록 공간’의 역할도 하고 있다.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 추모메시지를 담은 포스트잇은 기억존에서 만날 수 있다. 도서관 구성은 보기도 쉽고 자유로웠다. 그 곳에는 “기록되지 않는 역사는 기억될 수 없고 기억하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강남역 여성살해사건과 관련된 시민들의 추모기록과 기억을 형상화한 이 공간은 안전하고 성평등한 도시를 위해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함께 소통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 열린마당

## 다시 찾아온 메르스 이렇게 대처하자



김 경 덕

서귀포소방서 동흥119센터

2015년 우리는 메르스라는 생소한 이름의 중증 급성호흡기 전염성질환으로 전국을 공포에 휩싸였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6일 까지 쿠웨이트에 업무로 출장을 갔다가 지난 7일 귀국한 서울 거주 A씨가 8일 메르스 환자로 확진됐다고 밝혀 예전 악몽을 다시 떠오르게 했다.

2015년 4월 메르스 첫 환자가 발생하고 같은 해 12월 23일 상황종료가 선언될 때까지 186명이 감염되었고 그중 38명이 사망했다. 그리고 격리되어 해제된 인원만 1만6752명에 달했다. 그렇게 2015년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메르스가 3년여 만에 다시 대한민국을 찾아오게 된 것이다.

메르스 전파경로는 아직 정확하게 파

악되지 않았지만 낙타접촉, 낙타유 섭취, 또는 확진자와 비말접촉 등으로 감염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중동 아라비아 지역에서 주로 발생한다.

메르스에 감염되면 2-14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을 동반한 기침, 가래, 숨 가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고 설사, 구토와 같은 소화기 증상도 보인다. 특히 기저질환자나 면역기능저하자의 예후가 좋지 않아 지난 2015년 당시에도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감염돼 사망에 이르렀다.

예방법으로는 낙타 등 동물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고 손을 자주 깨끗이 씻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기침, 재채기 시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는 등 기침예절을 지켜야한다. 그리고 발열, 호흡기증세가 관찰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모든 질병은 예방이 중요하다. 초기 예방이 미흡하여 전국을 공포로 몰고 갔었던 2015년과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여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방법을 실천하길 당부한다.

## 식중독사고 남의 일 아닙니다



오 문 찬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최근 전국의 유치원과 고등학교에서 1000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방역당국이 초비상이 걸렸다. 육지부 한 대형업체가 전국에 납품한 초코 케이크가 원인으로 해당 케이크를 먹은 학생들 대다수가 식중독 증세를 보였고, 이러한 증세는 전국적으로 발생되면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가을철 식중독은 여름철 만큼 빈번히 발생한다. 사람들 대다수가 가을철에 무슨 식중독이나 반문하겠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식중독 발생건수를 분석한 결과 가을철 식중독건수가 84건으로 여름철 94건에 거의 육박했다. 가을철에도 식중독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이에 따른 대비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

로 보아진다.

우선 가을철이라고 안심하지 말고 식품 보관 방법 및 개인위생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가을철에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다수가 이러한 부주의로 인한 확률이 높다.

봄·가을에 많이 발생하는 식중독 원인으로는 육류를 대량으로 조리한 후 보관했다가 먹는 과정에서 독소가 생겨 식중독을 일으키며 큰 식당이나 학교같은 급식소에서 주로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음식이 맛·냄새·모양 등으로 보관이 가능하지만 보관된 음식은 74℃ 이상으로 가열해서 먹어야 한다.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조직진단에 서귀포시 위생관리과가 신설됐다. 신설되기 전에는 서귀포보건소에 2개 위생부서를 두어 조직이 약화됐었으나 1개계 추가신설과 분청에 위생관리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위생관리과 직원으로서 서귀포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관광객 1500만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서귀포시에 식중독 사고가 없는 관광 제1의 도시 서귀포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벌초기계판매

◆종류: 전착식, 배부식, 조립식

에초기/Brush Cutter

체인톱/Chain Saw

송풍기(낙엽청소)/Blower

잔디깎이/Lawn Mower

진정기/Hedge Trimer

남성로터리 ↑

신제주 ←

주경시장 정문 ↓

CU →

한성기계

## 한성기계

제주지역 ☎ 753-6653, FAX 753-6654

● 직항 전세기 전문여행사 ●

## 가자 일영투어

### T.727-2277

◆일반여행인252호◆ 2억원 보증보험가입업

**마닐라 3박4일** 출발일 10월31일 899,000원

**마닐라 골프** 출발일 10월31일 1,290,000원

항공권 판매

**코타키나발루** 출발일 9월24일 999,000원 (온전별도)

**코타키나발루 골프** 출발일 9월24일 1,090,000원~

**장가계 5일** 8월~10월 1,099,000원~ (비자별도)

**서안/화산 3박5일** 8월~10월 899,000원~ (비자별도)

**말레이시아 관광 4박5일** 제주직항 제주화도출발

**말레이시아 골프** 쿠알라룸푸르/말라카/젠링 5일 889,000원~

**단체별도문의바람** 두나라여행 쿠알라룸푸르/싱가폴 5일/6일 999,000원~

제주직항 | **일본오사카,교토 나라교배** 4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96,600원~

제주직항 | **방콕/파타야** 3박5일

매일출발 8월 31일~

462,000원~

제주직항 | **홍콩/마카오**

663,000원~

제주직항 | **동경/하코네/요코하마**

993,400원~

대만/화면/야류/지우펀 4일 799,000원~

가자 일영투어

IATA 공/통/사/항

왕복항공료, 호텔(2인1실), 전용차량료, 일정상의 식사, 관광지 입장료, 1억원여행자보험, 전정보험료, 관광진흥기금, 공항세, 직항 그 외 해외상품: 사이판, 싱가포르, 무이산하문, 장가계, 허니문, 호주, 시드니 등

가자 일영투어